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장쑤(江苏)성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이상훈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이한나 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최지원 연구원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장쑤(江苏)성

요약

- ▶ [장쑤성 내수용 수입] 장쑤성은 2013년 이후 일반무역(내수용) 수입 비중이 가공무역 수입 비중을 상회하면서 내수 중심의 수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2000년대 후반에 이미 내수용 수입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장쑤성은 가공무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 ▶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중 내수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2014년)에 불과해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인 실정임.
 -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출 비중이 60.3%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고도로 집중된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9.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 상위 2대 업종(화학물질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수출 집중도가 52.0%를 기록
- ▶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경쟁현황]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로는 △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 내구소비재에서, 업종별로는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에서 각각 경쟁우위를 확보
 -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산업용 원자재는 대만·일본,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은 일본·독일이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며, 업종별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는 대만·일본,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대만·일본·미국·독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는 일본·미국·독일, 가구 제조업에서는 독일이 주요 경쟁국임.
- ▶ [정책적 시사점] 장쑤성 수입시장에서 일반무역 비중이 가공무역 비중을 추월하며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긴급
 - 내수시장 진출 확대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한 중간재의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가공무역용 중간재에서 내수용 중간재 수출로의 전환 노력 필요
 - 소비재는 아직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작지만, 최근 소비재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내구소비재, 지리적 근접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
 - 기존의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에서 내수용 중간재 수출로의 전환과 소비재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통망 구축이 긴급함. 그러나 중국 특유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우리 유통망 구축이 쉽지 않은 만큼 현지 고객기업이나 전문 도매유통기업과의 연계, 온라인 유통체인과의 사업협력 등으로 현지 유통망 구축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긴급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4

차 례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나. 장쑤성 대외무역의 특징
2.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 가. 가공단계별 시장
 - 나. 업종별 시장
3.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현황
 - 가.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수출
 - 다. 업종별 수출
4. 주요국의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 가. 주요국의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다. 업종별 경쟁 현황
5.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중국 내 경제환경 변화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교역특성이 상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 지역(省)별 내수용 수입시장 동향과 변화 추이를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
 - 중국정부의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추진과 가공무역 축소정책으로 중국의 수입구조가 가공무역²⁾에서 일반무역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15년 6월 1일 양국간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한·중 FTA 발효 시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수혜는 일반무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대국으로서 각 지역간 경제구조, 인프라 여건, 발전수준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조도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수용 수입시장 동향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및 분석 내용] 중국 내 주요 지역(省)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수입 동향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간의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의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구조, 특히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감요인 분석 및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 마련 등에 유용함.
 - 한국 및 주요국의 지역(省)별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동향과 시장점유율, 경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해관으로부터 구입한 최근 5년간(2009~14년) 각 지역의 일반무역 통계를 이용함.
 - 중국 해관에서는 무역방식에 따라 무역통계를 2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크게는 △ 일반무역 △ 가공무역 △ 기타 무역³⁾으로 세분
 - HS코드 기반의 무역통계를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가공단계별·수입구조, 한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경쟁 현황 및 품목별 시장비교우위 등을 분석함.

1) 대부분 관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과 달리 일반무역은 관세를 납부하고 거래하는 일반적인 무역방식임. 일반무역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가공단계를 거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내수용 수입(또는 수출)'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함.

2) 가공무역은 중국 소재 기업이 해외에서 보세상태로 수입한 원재료 등을 이용해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무역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감면 받는 무역방식임. △ 무환수탁(來料) 가공무역 △ 유환수탁(進料) 가공무역 △ 가공무역 설비수입 △ 역외 가공무역 등이 이에 해당함.

3) 기타 무역은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을 제외한 무역방식으로 △ 무상원조·증여 △ 기타 기부물품 △ 구상무역 △ 위탁대리판매 △ 변경 소액무역 △ 대외 하청 프로젝트 수출 설비 △ 임대무역 △ 외국인투자기업 설비 투자 △ 물물교환 △ 면세 외환상품 △ 보세창고 출입국무역 △ 보세창고 중계무역 △ 수출 가공지역 설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함.



- [지역 선정] 중국의 31개 성자치구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동북의 4대 권역으로 구분한 후,4) 각 권역별로 한국의 일반무역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省)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함. 각 지역별 분석 결과는 시리즈 형태로 발간 예정
 - 동부권역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과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광둥성, 장쑤성, 베이징시로 상위 3개 지역을 선정
 - 중부권역에서는 안후이성, 서부권역에서는 쓰촨성, 동북권역에서는 랴오닝성을 선정
- 보고는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에 관한 첫 번째 시리즈 발간물로, 장쑤성의 내수용 수입시장을 분석

장쑤성 개황

- 장쑤성은 중국 성(省)급 지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며, 상하이·저장성 등과 함께 중국 최대의 경제발전 중심지인 '창장(長江)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발전지역
- 중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전국 1위이며, 2014년에만 3,031개의 외국인투자 기업이 신규 등록
- 2차 산업(47.7%)과 3차 산업(46.7%)이 함께 발전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 컴퓨터·통신장비·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 전기기계·기자재 제조업 △ 화학원료·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발달

<장쑤성의 위치>



자료: 저자 작성.

<주요경제지표>

항목	2010년	2012년	2014년	중국 내 순위
GRD (억 위안)	41,426	54,058	65,088	2
GRDP 성장률(%)	12.7	10.1	8.7	15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23,184	30,854	41,939	2
소비재 판매액(억 위안)	13,607	18,331	23,458	3
산업생산 증가율(%)	16.0	12.6	9.9	-
FDI(억 달러)	285	358	282	1
수출입 총액(억 달러)	4,989	5,900	6,097	2
수입	2,173	2,551	2,591	3
수출	2,816	3,349	3,506	2

주: 중국 수출입 통계는 지역별 해관통계와 CEIC 데이터 간 일부 차이가 있음. 2장부터는 해관통계 사용; 순위는 2014년 중국 내 31개 성(省)에서의 순위.
자료: CEIC.

나. 장쑤성 대외무역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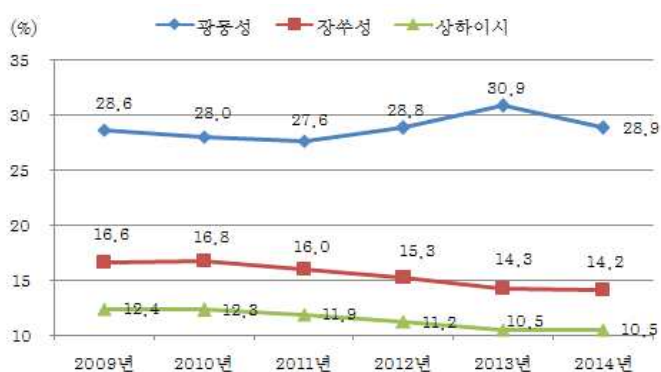
- [대외무역] 장쑤성의 교역규모는 2014년 6,097억 달러(중국의 14.2%)로 광둥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 동부권역에는 10개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이 포함되며, 중부권역에는 6개 지역(산시, 허난, 장시, 안후이, 후베이, 후난)이, 서부권역에는 12개 지역(산시, 네이멍구, 닝샤, 간쑤, 칭하이, 신장, 쓰촨, 충칭, 구이저우, 윈난, 서장, 광시)이, 동북권역에는 3개 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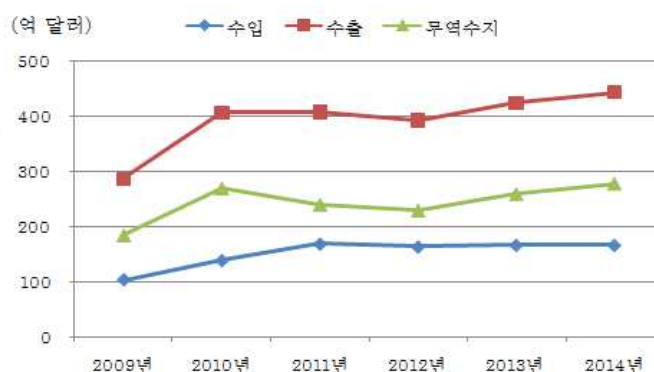
- 주요 수출대상국은 △ 미국 △ EU △ 홍콩 △ ASEAN △ 일본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 한국 △ 대만 △ 일본 등임.
- 장쑤성의 대표적인 교역 품목은 전기기계제품과 첨단기술제품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두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과 장쑤성 간 무역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쑤성 전체 교역액 대비 한국의 비중은 10.5%(2014년)로 3위를 차지하고 있음.⁵⁾
- 특히 한국은 장쑤성 최대의 수입대상국으로 장쑤성 총수입의 19.2%(2014년)를 차지함.

그림 1. 중국 전체 무역액 대비 장쑤성의 비중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2. 한국의 對장쑤성 무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총수입] 장쑤성의 총수입은 2005~14년 연평균 9.6%씩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경기 둔화로 해외수요가 감소하면서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05~10년 연평균 13.8% 증가했던 장쑤성의 총수입은 2010~14년 증가율이 4.5%로 급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
 - 장쑤성의 수입이 위축됨에 따라 중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5.8%에서 2014년 13.2%로 소폭 하락함.
- [무역방식별 수입] 2013년 이후 일반무역 수입 비중이 가공무역 수입 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이 2000년대 후반에 이미 일반무역 수입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장쑤성은 가공무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장쑤성은 2005년 이후 일반무역(내수용) 수입 비중이 점차 확대, 2014년에는 그 비중이 40.7%까지 상승하면서 점차 일반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2014년 39.0%까지 하락하였으나, 중국 전체로는 그 비중이 30% 이하여서 장쑤성은 상대적으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장쑤성의 총수입 대비 내수용 수입 비중은 전국(56.6%)보다 낮은 48.0%이나, 최근 내수용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냄.

5) 2014년 장쑤성의 국가별 교역 비중은 △ 미국(15.3%) △ 일본(10.5%) △ 한국(10.5%) 순이었음.



- 장쑤성의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15.7%)보다 높은 22.5%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8.4%에서 2014년 11.2%로 상승
- 같은 기간 중국 전체 가공무역 수입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서 16.5%로 하락

그림 3. 장쑤성의 무역방식별 수입 비중



자료: 장쑤성 통계국.

표 1. 장쑤성의 무역방식별 수입액

(단위: 억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수입	1,395.9	1,952.4	2,271.4	2,195.6	2,219.9	2,218.0
일반무역	451.4	666.2	880.9	797.3	876.9	901.9
가공무역	707.3	928.9	943.1	861.4	835.9	864.8
기타	237.2	357.3	447.4	536.9	507.1	451.3

자료: 장쑤성 통계국.

2.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가. 가공단계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장쑤성 총수입은 가공단계로 구분할 때 중간재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중간재 비중은 2009년 63.5%에서 2014년 61.4%로 소폭 하락함. 반면 일차상품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함.
 - 중간재는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각각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수입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의 경우 중국 전체 수입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에 달함.
 - 장쑤성 총수입에서 일차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8%에서 2014년 20.2%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미가공 연료유 활용에 대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의 수입 비중은 2.8%(2014년)로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내수용 수입구조]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중심이나, 중간재의 수입 비중은 총수입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또한 총수입과 달리 내수용 수입에서 일차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장쑤성의 내수용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2.5% 증가하여 전국(15.7%) 및 총수입 증가율(10.3%)을 상회함.
 - 내수용 수입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48.2%(2014년)로 일차상품이나 최종재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중간재 중에서 특히 가



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장쑤성 내수용 수입에서 30.4%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았음.

- 일차상품까지 고려할 경우 장쑤성의 내수용 수입에서 산업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 수준(48.4%)에 달함. 이는 장쑤성의 제조업 발달로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
- 중간재 비중은 2009년 57.4%에서 2014년 48.2%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반제품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 하락(38.6 → 30.4%)에 기인
- 2009~14년 중 수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품목은 일차상품으로 연평균 30.2%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가공 연료·윤활유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임.
- 2009~14년 미가공 연료·윤활유의 수입 비중이 1.5%에서 11.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공된 연료·윤활유의 수입 비중도 1.4%에서 2.8%로 증가
- 이는 화학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
- 내수용 수입 중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아직은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임.
- 중국 전체 내수용 수입 중 소비재의 비중이 9.6%인 것과 비교하면 장쑤성의 소비재 수입 비중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

표 2. 장쑤성의 가공단계별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감률

분류	장쑤성 총수입			장쑤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	2009~14	2014	2014	2009~14	2014	2014	2009~14
일차상품	20.2	15.8	10.0	36.3	30.2	10.4	38.9	16.7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3.2	11.6	16.6	6.4	20.1	17.2	4.2	18.4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10.2	15.7	12.6	18.0	22.2	12.9	15.6	12.3
미가공 연료·윤활유	6.8	18.4	6.8	11.9	85.9	7.0	19.1	20.8
중간재	61.4	9.6	17.0	48.2	18.3	15.0	36.0	11.8
반제품	30.5	10.3	17.0	35.6	18.1	18.0	22.1	10.5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1.2	4.6	25.1	2.3	20.3	29.5	0.9	7.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27.6	10.1	17.5	30.4	16.8	18.0	18.9	9.9
가공된 연료·윤활유	1.7	21.8	10.2	2.8	41.0	13.6	2.3	17.5
부품부분품	30.9	9.0	17.0	12.6	18.5	10.2	13.8	14.0
자본재 부품부분품	28.7	9.5	17.8	10.1	17.9	11.0	10.3	13.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2.2	3.6	10.8	2.4	21.3	7.8	3.5	14.4
최종재	18.4	7.7	11.2	15.5	21.9	8.5	20.4	16.8
자본재	15.6	5.9	14.3	11.1	19.5	11.5	10.8	10.5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5.6	5.9	15.8	11.1	19.7	12.0	10.3	12.0
산업용 운송장비	0.0	-7.1	0.2	0.0	-4.8	1.1	0.5	-7.0
소비재	2.8	23.7	5.1	4.4	29.9	5.2	9.6	27.7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5	20.5	12.1	1.1	43.2	14.4	0.8	28.6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3	35.5	3.4	0.6	36.6	4.6	1.4	27.4
승용차	0.0	23.9	0.1	0.1	19.2	0.1	5.1	31.9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39.1	8.2	0.0	44.8	9.3	0.0	40.6
내구 소비재	0.3	26.7	8.1	0.3	31.9	9.7	0.4	20.8
반내구 소비재	0.5	19.7	9.0	0.9	26.8	11.5	0.9	23.2
비내구 소비재	1.1	24.0	12.8	1.5	23.3	16.2	1.0	18.0
미분류	0.0	-6.6	0.5	0.0	-13.8	0.0	4.7	99.6
전체	비중(또는 증가율)	100.0	10.3	100.0	22.5	11.2	100.0	15.7
	금액(억 달러)	2,591.0	-	-	1,242.6	-	11,095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전국 대비] 중국 전체로는 일차상품과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나, 장쑤성의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고, 특히 반제품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반제품 중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이 중국 전체보다 13.5%p 높은 30.4% 수준임.
-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 중에서 일차상품의 수입 증가율이 전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차상품 중 특히 미가공 연료·윤활유의 수입 증가율이 중국보다 65.1%p나 높은 85.9%를 기록
- 각 품목별 중국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제품(18.0%)이 가장 컸으며, 반면에 소비재의 경우 중국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불과함.

■ [품목별 내수용 수입] 내수용 수입에서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증가율에서는 일차상품과 최종 소비재의 수입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일차상품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30.2%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비중도 2009년의 26.7%에서 2014년 36.3%로 가장 크게 확대
 - 일차상품에 대한 내수용 수입은 △ 금속광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표 3 참고), 일차상품 중 미가공 연료·윤활유에 대한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2013년 이후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4년 48.2%로 일차상품이나 최종재의 비중을 압도하고 있으나 2009년(57.4%)에 비해서는 9.2%p 떨어졌는데, 이는 내수용 수입(22.5%)보다 중간재(18.3%)의 수입 증가율이 더 낮은 데 기인함.
 - 중간재 중에서는 반제품 수입의 비중이 크고,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가 반제품 수입을 주도하였음.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는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품·부분품의 경우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과 기타 기계·장비 제품에 대한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내수용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제품(HS-6단위 품목 기준)의 경우 △ 스티렌 △ 천연가스 △ 에틸렌 글리콜 △ 파라크실렌 등이 상위 수입 품목이며, 상위 10대 품목 중 상당수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 수입하는 품목임(표 4 참고).
- 최종재 가운데 소비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29.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면서 비중이 3.3%에서 4.4%로 다소 확대됨.

표 3. 장쑤성 내수용 일차상품 및 중간재 수입시장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세부 업종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2009~14년 연평균 증가율(%)	
일차상품 (36.3)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18.0)	금속광업	14,356.3	64.3	26.9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790.4	17.0	52.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175.3	5.3	18.6	
	미가공 연료·윤활유(11.9)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4,806	100	85.9	
중간재 (48.2)	반제품 (35.6)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0.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21,583.5	57.1	17.7
		1차금속 제조업	4,921.9	13.0	5.4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2,026.4	5.4	20.7	
	부품·부분품 (12.6)	자본재 부품·부분품 (10.1)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6,722.9	53.3	20.3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4,227.3	33.5	16.0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522.3	4.1	13.2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 안의 수치는 장쑤성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장쑤성의 내수용 반제품 수입 상위 10개 품목(2014년)

순위	HS코드(6단위)	품목명	수입액 (억 달러)	반제품 내 비중 (%)	해당 업종
1	2902.50	스티렌	31.8	7.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2	2711.11	액화천연가스	19.2	4.3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3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4.9	3.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4	2902.43	파라크실렌	14.8	3.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5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11.9	2.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6	1511.90	기타	11.8	2.7	식품 제조업
7	8542.39	기타	11.0	2.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8	7403.11	음극·음극의 형재	10.8	2.4	1차금속 제조업
9	2710.19	기타	9.9	2.2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0	2901.21	에틸렌	9.4	2.1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업종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제조업이 90.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하락함. 또한 농림수산업(11.7%)과 광업(19.3%)의 수입 증가율이 장쑤성 전체 수입 증가율(10.3%)을 넘어서면서 그 비중이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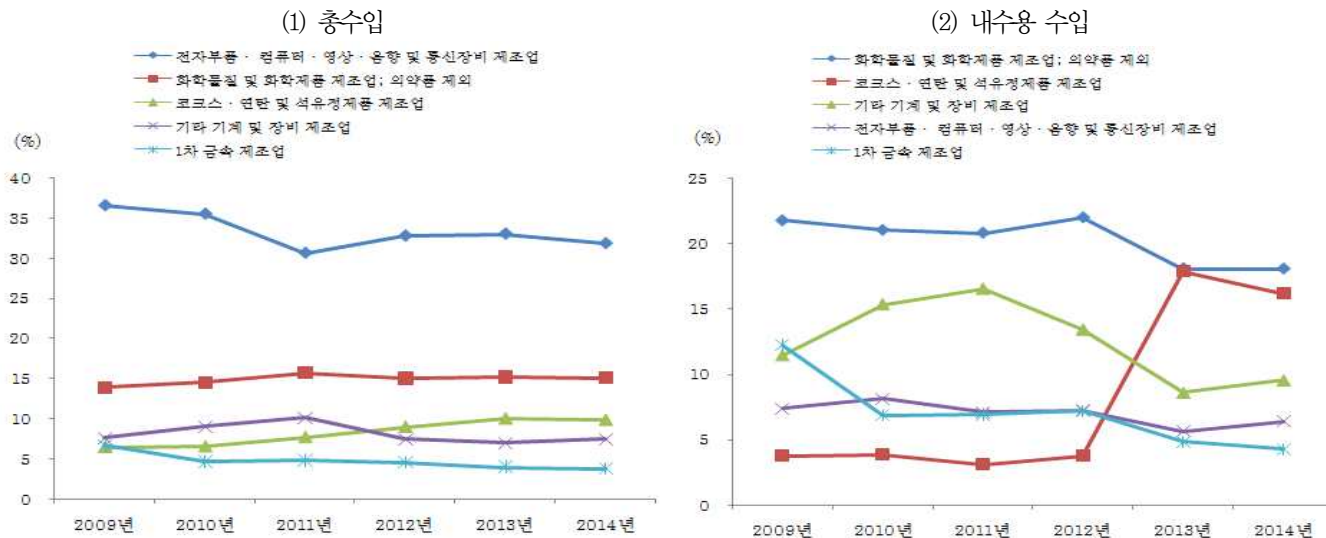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31.9%) 수입이 제조업 전체 수입의 약 1/3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음.

■ [내수용 수입구조] 제조업 비중이 81.3%(2014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총수입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대신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비중이 총수입에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광업에서 가장 높았음.

- 세부 업종별 비중은 총수입과 달리 화학물질·제품 제조업(18.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16.2%) △ 금속광업(11.6%)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9.6%)에서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장쑤성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31.9%)을 차지하였으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6.4%로 크게 낮았는데, 이는 대부분 가공무역 형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수입 증가율(18.0%)이 제조업 평균(22.1%)을 하회하면서 수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연평균 수입 증가율(64.3%)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이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09년 3.7% 수준이던 수입 비중이 2014년 16.2%로 크게 확대
- 제조업 중에서 △ 코크스·석탄·석유 정제품 제조업(64.3%)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54.4%)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35.3%) △ 음료제조업(33.4%) 등이 최근 5년간 높은 연평균 수입 증가율을 보임.



그림 4. 장쑤성의 주요 업종별 수입 비중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전국 대비] 중국 전체와 마찬가지로 장쑤성의 업종별 수입시장은 제조업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였으며, 수입 비중 및 증가율도 중국 전체 수준을 소폭 상회하였음.

- 제조업과 광업의 수입 비중은 중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중국 전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쑤성이 식품가공업이 발달한 지역(매출액 기준 전국 6.3% 비중, 4위)으로 해외로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나타냄.
- 세부 업종에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이 중국 전체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18.1%의 수입 비중을 보였으며, 반대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7%)은 중국 전체에 비해 그 비중이 1/4 수준에 불과하였음.
- 장쑤성은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모두 중국 전체에 비해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광업에서의 증가율 격차가 가장 컸음(14.3%p).
- 세부 업종별로는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장쑤성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

표 5. 장쑤성의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업종별)

분 류	장쑤성 총수입			장쑤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3.3	11.7	16.2	6.5	20.3	16.7	4.4	18.9
광업	6.4	19.3	11.7	12.2	26.7	12.2	11.2	12.3
금속 광업	6.1	19.2	11.6	11.6	26.9	12.2	10.6	12.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3	21.4	13.0	0.7	23.8	13.4	0.5	19.6



표 5. 계속

분 류	장쑤성 총수입			장쑤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제조업	90.3	9.8	12.0	81.3	22.1	11.4	79.7	14.9
식료품 제조업	2.2	11.1	1.7	4.2	26.9	12.3	3.5	21.9
음료 제조업	0.0	45.9	3.1	0.1	33.4	3.8	0.1	22.2
담배 제조업	0.0	-91.3	0.0	0.0	-	0.0	0.1	16.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9	15.1	20.9	1.7	23.2	19.8	0.9	23.6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1	19.5	3.1	0.2	30.4	4.4	0.4	27.9
가죽·기방·신발 제조업	0.4	22.1	9.1	0.7	35.3	11.6	0.7	21.9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8	25.8	21.0	3.8	54.4	26.1	1.6	33.5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5	8.8	17.8	1.6	5.9	12.8	1.4	8.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11.4	5.8	0.0	19.6	2.0	0.1	15.8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9.8	20.0	8.0	16.2	64.3	8.2	22.1	2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5.2	12.3	22.8	18.1	18.0	21.0	9.7	10.6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9	25.3	12.1	1.3	18.1	16.3	0.9	1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	9.7	17.6	2.1	20.5	16.2	1.4	17.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7	16.6	3.9	0.6	19.8	13.5	0.5	20.8
1차 금속 제조업	3.8	-1.3	11.2	4.3	-0.6	10.9	4.4	-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1.2	12.0	18.5	1.5	19.9	18.8	0.9	1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1.9	7.3	17.7	6.4	18.9	7.5	9.6	14.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8	16.0	13.1	3.1	26.0	11.6	3.0	16.1
전기장비 제조업	3.8	5.5	16.2	2.7	18.1	15.7	1.9	7.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7.4	10.0	17.6	9.6	18.1	16.5	6.5	10.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5	5.3	3.9	1.7	18.6	2.4	8.0	2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9	0.7	5.2	0.9	23.5	9.3	1.1	0.5
가구 제조업	0.1	18.8	8.1	0.2	29.0	11.0	0.2	16.2
기타 제품 제조업	0.3	10.4	7.3	0.5	19.0	9.8	0.6	15.1
전기·가스·중기·공기조절 공급업	0.0	-	0.0	0.0	-	0.0	0.0	-0.4
미분류	0.0	-	0.0	0.0	-	0.0	4.7	102.1
전체	100.0	10.3	13.8	100.0	22.5	11.2	100.0	15.7
금액(억 달러)	2,590.8	-	-	1,242.6	-	-	11,094.9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3.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현황

가.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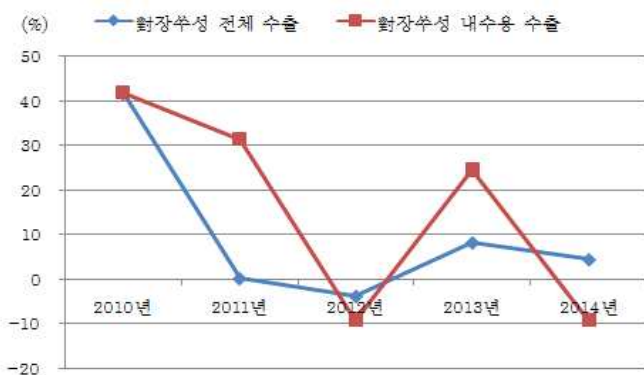
- [총수출] 장쑤성에 대한 한국의 총수출은 2005~09년 연평균 12.9% 증가한 반면 2010~14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크게 둔화됨. 이는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 증가율(8.4%)보다 6.2%p 낮은 수준이며, 장쑤성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4.5%)보다도 낮은 실정임.



■ [무역방식별] 장쑤성의 수입구조가 과거 가공무역 중심에서 최근 일반무역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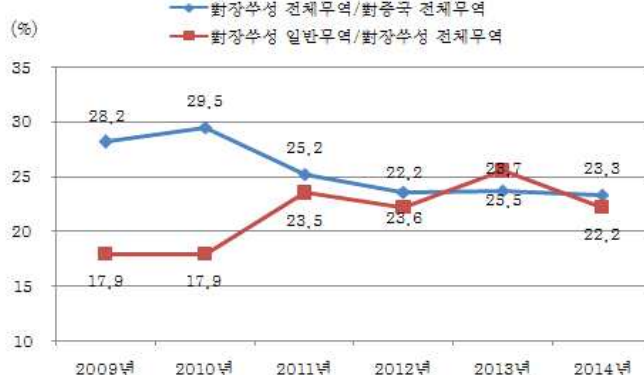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 수출 중 내수용 수출의 비중은 2009년 이후 약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의 비중은 2014년 기준 22.2%에 불과
- 그러나 최근 5년간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13.0%)보다 다소 높은 13.9%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용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국 내수용 수출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4.9%에서 2014년 15.8%로 소폭 상승함.
-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인 것과 비교할 때 대중국 내수용 수출에서 장쑤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

그림 5.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6.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장쑤성의 비중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수출

■ [총수출 구조]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은 중간재 중심이며, 그 비중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소비재 수출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대장쑤성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음.

- 한국의 대장쑤성 총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9.0%(2014년)로 매우 높으며,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과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2014년 대장쑤성 총수출에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8%와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 비중도 2009년 이후 점차 상승세
- 최종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이나 대부분 자본재 수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비재에 대한 수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다만 소비재의 경우 수입규모가 작지만 최근 5년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과 비내구 소비재에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각각 57.3%와 42.6%)



그림 7.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구조 변화(가공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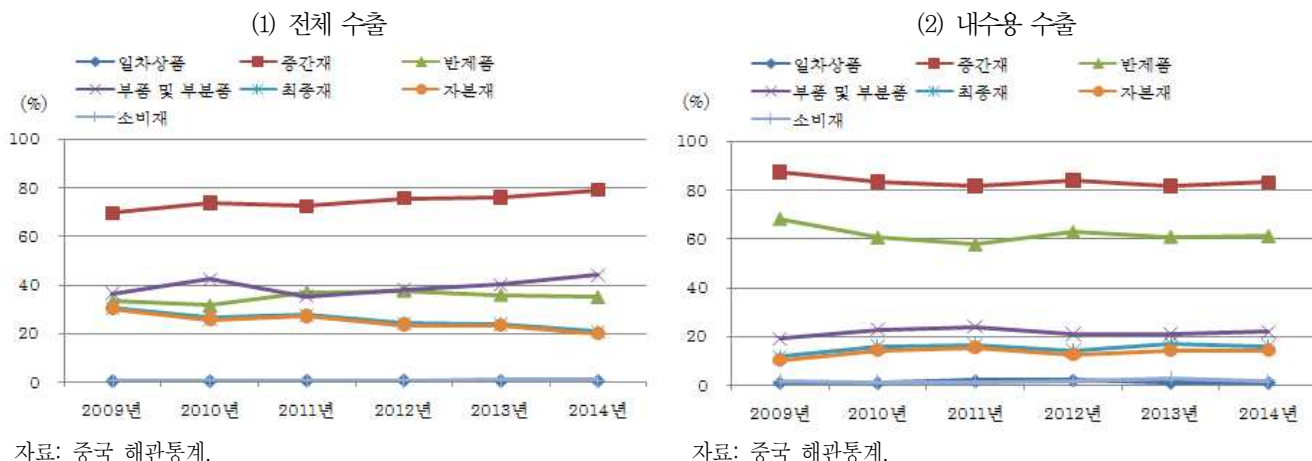


표 6. 한국의 대장쑤성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장쑤성 총수출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	2009~14	2014	2014	2009~14	2014	2014	2009~14	
일차상품	0.3	13.3	14.4	0.9	14.0	12.3	1.1	3.9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100.0	0.0	0.0	0.0	0.0	0.0	64.8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3	13.7	14.4	0.9	14.0	12.3	1.1	3.9	
미가공 연료·운할유	0.0	0.0	0.0	0.0	0.0	41.7	0.0	-	
중간재	79.0	11.9	23.2	83.1	12.8	16.8	78.6	12.6	
반제품	35.0	10.2	23.0	61.3	11.5	20.4	46.6	10.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30.3	1.0	0.0	112.4	0.5	0.0	37.9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3.8	10.3	24.7	60.3	11.7	21.9	42.7	10.2	
가공된 연료·운할유	1.2	6.5	8.0	1.0	1.5	4.0	3.8	9.8	
부품·부분품	44.0	13.3	23.4	21.8	17.0	11.2	32.0	16.8	
자본재 부품·부분품	40.1	16.0	23.2	12.2	16.0	8.0	25.1	16.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3.9	-2.8	25.4	9.6	18.4	22.4	6.9	16.8	
최종재	20.8	1.2	23.9	16.0	21.0	12.3	20.2	16.0	
자본재	20.0	0.6	25.9	14.2	21.3	14.6	14.6	14.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20.0	0.6	26.0	14.1	21.2	14.7	14.5	15.2	
산업용 운송장비	0.0	23.1	4.9	0.0	77.9	2.8	0.1	-8.0	
소비재	0.8	28.4	8.1	1.9	19.1	5.5	5.7	19.5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57.3	0.5	0.0	-10.8	0.0	0.0	23.7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0	7.9	0.8	0.0	25.9	0.3	0.7	32.2	
승용차	0.0	-100.0	0.0	0.0	-100.0	0.0	2.8	14.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10.8	26.8	0.0	-100.0	0.0	0.0	17.4	
내구 소비재	0.4	29.1	34.1	0.7	11.0	28.5	0.7	41.1	
반내 구소비재	0.2	19.8	13.2	0.5	17.8	13.4	0.6	19.4	
비내 구소비재	0.2	42.6	12.8	0.6	42.3	12.4	0.8	22.6	
미분류	0.0	0.0	0.0	0.0	-20.2	1.5	0.1	-28.4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9.1	23.3	100.0	13.9	15.8	100.0	13.0
	금액(억 달러)	443.8	-	-	98.6	-	-	625.1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내수용 수출구조]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은 총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간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떨어지고 있음. 반면 최종재의 수출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중간재 비중은 총수출보다 내수용 수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 87.2%에서 2014년 83.1%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반제품 수출의 둔화에 기인함.
 - 중간재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 비중은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가운데 60.3%를 차지,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이 특정 품목에 고도로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대장쑤성 중간재 비중의 하락은 주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출 위축(2009년 66.4%에서 2014년 60.3%로 하락)에 기인하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10.8%)이 전체 수출 증가율 13.9%보다 낮았기 때문임.
 - 반면 중간재 중 부품·부분품의 비중 확대는 장쑤성 내 IT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데다,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임.
 - 가장 큰 수출 비중을 보이는 반제품의 경우 수출 품목을 HS-6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경우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관련된 품목이 37.2%를 차지(표 8 참고)
- 최종재 수출은 자본재의 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 비중이 2009년 11.8%에서 2014년 16.0%로 비교적 크게 증가함. 특히 소비재 수출 비중은 1.9%로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비내구 소비재 수출이 연평균 4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자본재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19.2%를 차지하는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이 각각 연평균 25.7%, 38.0%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자본재 수출을 주도
 -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아주 작지만, 비내구 소비재와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의 경우 각각 42.3%, 25.9%의 높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기록
 - 비내구 소비재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들 업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각각 61%, 106.8%를 기록함. 특히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경우 수출액이 2009년 약 350만 달러에서 2014년 3,8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표 7.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중간재 수출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세부 업종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2009~14년 연평균 증가율(%)	
중간재 (83.1)	반제품 (61.3)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60.3)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3,888.9	65.4	10.8	
			1차금속 제조업	893.1	15.0	10.0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282.9	4.8	18.3	
	부품·부분품 (21.8)	자본재 부품·부분품 (운송장비 제외)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679.0	56.4	23.0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53.2	29.3	9.4	
			전기장비 제조업	61.0	5.1	14.2	
최종재 (16.0)	자본재(14.2)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4.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836.3	60.0	25.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67.9	19.2	38.0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0)	1.1	93.0	25.6	
	소비재 (1.9)	소비재	음료 제조업	0.1	7.0	31.4	
			내구 소비재(0.7)	70.0	97.0	10.8	
			반내구 소비재(0.5)	49.8	91.8	21.6	
			비내구 소비재(0.6)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7.8	65.9	60.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2.8	22.4	26.5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 안의 수치는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8. 한국의 대장쑤성의 내수용 반제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4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억 달러)	구성비(%)	업종 구분(세분류)
1	2902,50	스티렌	9.5	15.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2	2902,43	파라-크실렌	7.9	13.1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3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3.3	5.5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2.8	4.6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5	2901,21	에틸렌	2.3	3.8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6	7210,49	기타	2.0	3.3	1차 금속 제조업
7	2713,20	석유아스팔트	1.9	3.2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8	8708,40	기어박스	1.4	2.3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9	8542,39	기타	1.2	2.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0	7209,17	두께가 0.5mm 이상 1mm 이하인 것	1.2	2.0	1차 금속 제조업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중국 해관통계.

다. 업종별 수출

■ [총수출 구조] 제조업 비중이 99.8%로 절대적이며, 특히 상위 2대 수출 업종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 대한 집중도는 72.7%에 달함(2014년).

- 최대 수출업종인 전자부품·컴퓨터·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0%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전 업종 평균(9.1%)보다 높은 11.9%로 나타남.
- 대장쑤성 수출 상위 5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8%로, 일부 업종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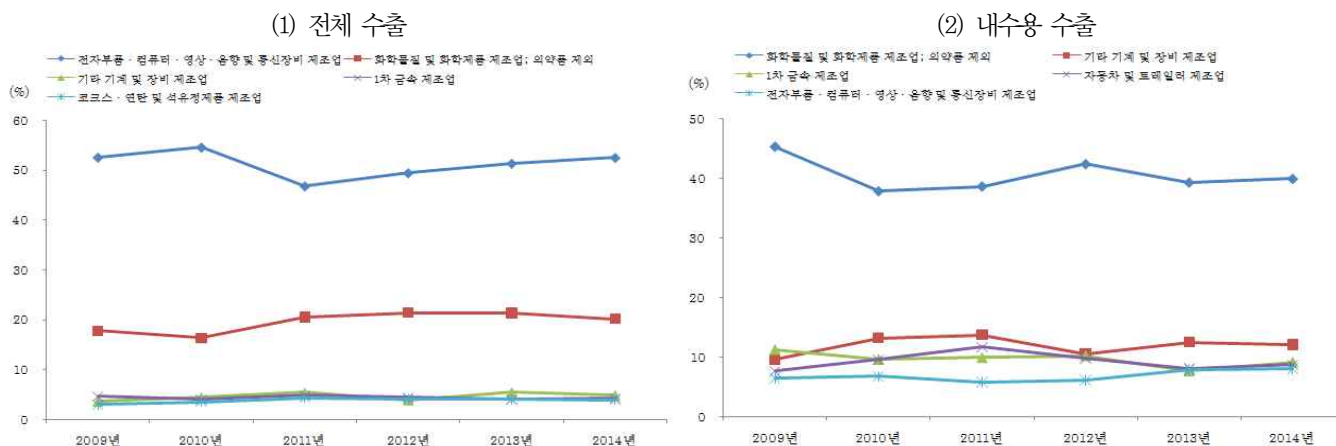
■ (내수용 수출구조) 내수용 수출 역시 제조업 비중이 99.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총수출(9.0%)보다 높은 13.8%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 비중 상위 2대 업종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52.0%로, 총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상위 2대 업종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39.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2.1%)으로, 특히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임.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내수용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2009년 45.3% → 2014년 39.9%)하고 있는 반면,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점차 확대(9.6 → 12.1%)되고 있는 추세
- 상위 수출 5대 업종 중에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1~4위 업종이 모두 대장쑤성 총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내수용 수출에서의 비중이 더 높아 내수용 수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업종들임.
 - 대장쑤성의 총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52.5%)의 경우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불과하여 가공무역 수출에 집중
- 제조업 중 △의료·정밀·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제조업 등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이었으며, 광업에서는 비금속광물 광업에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



- 광업에서는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30.8%를 기록
- 제조업 중 목재·나무 제조업(61.4%), 식료품 제조업(37.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었으나, 대장쑤성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
-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은 11.1%로 전체 업종 평균(13.9%)을 하회

그림 8.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구조 변화(업종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9. 한국의 대장쑤성 업종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對장쑤성 총수출			對장쑤성 내수용 수출			對중국 내수용 총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	2009~14	2014	2014	2009~14	2014	2014	2009~14
농림수산업	0.0	-20.6	1.1	0.0	27.1	1.7	0.1	29.1
광업	0.2	31.4	40.3	0.6	29.8	30.8	0.3	14.4
금속 광업	0.0	34.8	22.5	0.0	13.5	2.1	0.1	2.0
비금속광물 광업	0.2	31.0	44.2	0.6	30.3	40.3	0.2	21.5
제조업	99.8	9.0	20.6	99.3	13.8	15.7	99.5	12.8
식료품 제조업	0.0	6.5	0.0	0.1	37.6	2.2	0.6	31.2
음료 제조업	0.0	62.8	0.4	0.0	31.1	0.1	0.1	24.0
담배 제조업	0.0	-	0.0	0.0	0.0	0.0	0.0	13.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0.5	15.9	17.7	0.5	28.2	18.1	0.5	21.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0	-5.8	0.6	0.0	-3.1	0.5	0.2	15.1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0	6.2	2.3	0.0	15.3	1.2	0.2	26.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	-17.7	4.2	0.0	61.4	7.6	0.0	19.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1	-1.8	7.0	0.2	9.3	7.5	0.4	2.7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4.7	5.8	0.0	22.4	18.1	0.0	16.7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4.0	15.5	18.5	3.9	6.8	9.2	6.6	10.1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2	11.9	30.9	39.9	11.1	21.6	29.2	10.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0	-6.7	1.1	0.0	10.6	2.8	0.2	14.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14.1	28.9	3.4	18.7	21.3	2.5	1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6	48.4	2.5	0.5	26.4	18.9	0.4	25.1
1차 금속 제조업	4.3	7.2	24.4	9.2	9.3	23.1	6.3	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1.1	15.0	24.3	3.1	17.9	26.5	1.8	12.5



표 9. 계속

분류	對장쑤성 총수출			對장쑤성 내수용 수출			對중국 내수용 총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52.5	9.0	24.5	8.1	18.9	5.3	23.9	14.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8	6.6	21.4	3.5	25.3	18.0	3.0	25.9
전기장비 제조업	3.2	-3.0	28.3	4.4	13.0	27.5	2.5	13.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8	15.7	21.9	12.1	19.3	18.9	10.1	16.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2	2.0	18.9	8.7	17.0	15.1	9.1	1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7	-14.8	24.7	1.0	34.8	15.8	1.0	6.5
가구 제조업	0.2	14.8	30.9	0.6	17.8	26.3	0.4	18.8
기타 제품 제조업	0.1	20.4	7.2	0.1	32.7	5.3	0.4	45.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	-	0.0	0.0	-	0.0	-
미분류	0.0	-	-	0.0	-20.2	1.5	0.1	-26.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9.1	23.3	100.0	13.9	15.8	12.6
	금액(억 달러)	443.80	-	-	98.6	-	625.1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4. 주요국의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가. 주요국의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장쑤성 수입시장] 2014년 장쑤성 총수입에서 주요 5개국⁶⁾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52.2%였으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이보다 낮은 33.8%의 비중을 보임.

- 장쑤성 총수입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6.4%에서 2014년 52.2%로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
 - 장쑤성의 대일본 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1위 한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
 - 미국과 독일로부터의 수입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점유율이 확대
-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53.7%에서 2014년 33.8%로 크게 떨어졌으며, 최근 5년간 주요 5개국들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장쑤성 평균(22.5%)을 하회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내수용 수입이 둔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2009년 4.6%p에서 2014년 1.3%p로 축소
 - 전반적으로 주요 5개국의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
-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2009~14년간 일본과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대만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6.8%p)하였으며, 미국도 5.6%p가 하락

6) 주요 5개국은 중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인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을 가리킴.



- (한국의 시장점유율) 2014년 한국은 장쑤성 총수입에서 시장점유율 17.1%로 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으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7.9%의 점유율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
 - 한국은 총수입시장에서 2009년 이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주요 5개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 5개국 중 한국은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순위가 2009년 3위에서 2014년 2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1위 일본과의 격차도 축소됨(4.8%p에서 1.3%p로 축소). 그러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11.4%에서 2014년 7.9%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장쑤성 총수입시장 내 시장점유율이 17.1%인 것과 비교해볼 때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은 7.9%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이는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여전히 높음을 나타냄.
 - 2009년 대비 2014년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함.

표 10. 주요 국가별 장쑤성 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장쑤성 총수입					장쑤성 내수용 수입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2009	100.0	18.1	12.9	14.9	6.4	4.1	100.0	11.4	6.6	16.0	11.9	7.8
2010	100.0	18.7	13.2	14.9	6.5	3.7	100.0	10.9	7.3	16.9	11.1	7.5
2011	100.0	15.9	12.3	14.5	6.4	4.3	100.0	10.9	6.5	16.0	10.5	7.9
2012	100.0	15.4	12.0	12.9	6.9	3.9	100.0	10.9	7.0	14.7	9.8	7.3
2013	100.0	16.4	11.7	11.7	7.2	4.0	100.0	8.8	5.6	9.1	6.1	6.2
2014	100.0	17.1	12.4	11.3	7.1	4.3	100.0	7.9	4.9	9.2	6.3	5.5
연평균 증가율 (2009~14)	10.3	9.1	9.6	4.3	12.5	11.4	22.5	13.9	15.7	9.6	7.7	14.5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중간재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종재와 일차상품에서는 각각 8.2%, 0.2%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2014년).
 - 중간재에서 한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17.3%에서 2014년 13.7%로 하락함.
 - 한국은 중간재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최종재의 시장점유율은 5개국 중에서 4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내구 소비재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가공단계별 점유율 현황] 한국은 중간재, 일본은 중간재와 최종재, 미국은 일차상품, 독일은 최종재 수입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일차상품] 미국이 주요국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6.2%)을 차지한 반면, 한국(0.2%)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비중은 미미(2014년 기준)



- [중간재]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국간 시장점유율 격차도 1.2%p로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양국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반제품에서는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부품·부분품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3.7%로 일본(11.7%)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부품·부분품에서는 일본의 시장점유율(15.0%)이 한국(13.7%)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음.
- 주요 5개국의 반제품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대비 2014년 18.6%p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요 5개국의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됨.
- [최종재] 일본이 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17.0%)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만의 시장점유율만 확대됨.
- 최종재 중 자본재에서는 일본이 22.2%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소비재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8.6%)을 차지

표 11.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가공단계별)

(단위: %)

	2009					2014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11.4	6.6	16.0	11.9	7.8	7.9	4.9	9.2	6.3	5.5
일차상품	0.4	0.2	5.3	22.2	0.5	0.2	0.1	1.3	6.2	0.2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0	42.7	0.0	0.0	0.0	0.0	11.3	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6	0.3	7.7	15.7	0.7	0.4	0.3	2.7	7.8	0.4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0.0	0.0	4.8	0.0	0.0	0.0	0.0	0.9	0.0
중간재	17.3	10.0	18.9	7.7	8.2	13.7	8.3	12.5	5.7	6.3
반제품	18.3	10.2	18.9	7.7	5.4	13.7	7.3	11.7	5.5	3.7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0	0.5	0.2	0.0	0.0	0.0	1.2	0.6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9.6	11.0	20.1	8.2	5.8	15.7	8.0	13.2	6.2	4.1
가공된 연료·윤활유	14.5	7.1	19.6	6.5	3.7	2.8	5.5	4.3	1.4	1.8
부품·부분품	14.7	9.3	19.0	7.8	16.5	13.7	11.1	15.0	6.3	13.5
자본재 부품·부분품	10.4	10.8	19.3	8.6	16.4	9.5	13.0	14.1	6.6	13.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35.1	2.0	17.6	4.5	16.9	31.1	3.1	18.9	4.9	12.0
최종재	8.5	4.8	23.6	9.8	18.3	8.2	5.9	17.0	8.3	15.9
자본재	9.4	5.6	27.8	9.3	21.4	10.1	7.6	22.2	8.1	20.5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9.5	5.7	27.9	9.1	21.3	10.1	7.6	22.1	8.0	20.1
산업용 운송장비	0.1	0.2	21.5	23.0	34.5	1.3	0.3	25.6	16.8	55.8
소비재	5.2	2.0	7.7	11.8	6.2	3.4	1.5	4.0	8.6	4.2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0.1	0.0	0.5	0.0	0.0	0.1	0.0	0.1	0.0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2	1.2	0.4	52.8	1.4	0.2	0.7	0.1	36.6	3.1
승용차	0.3	0.0	14.7	30.4	1.2	0.0	0.0	6.7	80.1	13.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1	14.1	23.0	56.7	0.0	0.0	32.9	3.9	37.1	0.2
내구 소비재	42.3	1.0	2.3	11.9	12.3	17.9	0.7	1.0	2.4	4.5
반내 구소비재	7.1	5.8	8.3	4.7	11.1	4.9	3.6	4.6	4.8	5.9
비내 구소비재	1.5	1.0	12.1	8.5	6.3	3.1	1.1	8.7	3.6	6.3
미분류	60.9	0.0	18.5	0.1	0.0	-	-	-	-	-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⁷⁾ 분석 결과 한국은 중간재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재 중 자본재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냄. 그러나 일차상품과 소비재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임.
 - 한국의 중간재 수출품에 대한 시장비교우위지수는 2009년 대비 2014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제품 중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부품·부분품 중에서는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강하게 나타남.
 - 최종재는 2009년 비교열위에서 2014년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으로, 특히 자본재에서 비교우위가 강하게 나타남. 그러나 소비재에서는 내구 소비재가 유일하게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으로 나타남.
- [가공단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일본은 중간재와 최종재, 미국은 최종재, 독일은 중간재와 최종재, 대만은 중간재와 최종재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일차상품에서는 주요 5개국에 대체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산업용 식음료품과 산업용 원자재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중간재의 경우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일본, 독일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부분품의 경우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보임.
 - 자본재의 경우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독일이 가장 우세
 - 대만은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일본은 산업용 운송장비, 미국은 승용차와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독일은 산업용 운송장비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표 12. 주요 국가의 장쑤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가공단계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일차상품	0.03	0.03	0.33	1.87	0.07	0.02	0.03	0.14	0.99	0.03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0	3.58	0.00	0.00	0.00	0.00	1.81	0.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05	0.05	0.48	1.32	0.10	0.05	0.05	0.29	1.25	0.06
미가공 연료·윤활유	0.00	0.00	0.00	0.40	0.00	0.00	0.00	0.00	0.15	0.00
중간재	1.52	1.52	1.18	0.65	1.06	1.72	1.67	1.37	0.91	1.13
반제품	1.60	1.56	1.18	0.64	0.69	1.72	1.47	1.27	0.88	0.67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0	0.04	0.02	0.00	0.01	0.00	0.20	0.11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72	1.68	1.25	0.69	0.75	1.98	1.62	1.45	0.99	0.74
가공된 연료·윤활유	1.27	1.09	1.23	0.55	0.48	0.35	1.11	0.47	0.23	0.32
부품·부분품	1.29	1.41	1.19	0.66	2.12	1.73	2.24	1.64	1.00	2.43
자본재 부품·부분품	0.91	1.65	1.20	0.72	2.11	1.20	2.63	1.54	1.05	2.50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3.08	0.30	1.10	0.38	2.17	3.92	0.62	2.07	0.79	2.17

7)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는 어느 국가의 특정 수출품목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시장점유율과 달리 경제 및 수출 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 지표는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변형한 것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MCA_{jS}^i = \frac{X_{jS}^i / X_{jS}^i}{WX_{jS}^i / WX_{jS}^i} \quad (\text{단 } MCA_{jS}^i \text{ 는 } i \text{ 국 } j \text{ 상품 의 장쑤성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X_{jS}^i \text{ 는 } i \text{ 국의 대장쑤성 } j \text{ 상품 수출액, } X_{jS}^i \text{ 는 } i \text{ 국의 대장쑤성 총수출액, } WX_{jS}^i \text{ 는 전 세계의 대장쑤성 } j \text{ 상품 수출액, } WX_{jS}^i \text{ 는 전 세계의 대장쑤성 총수출액})$$

RCA와 마찬가지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표 12. 계속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최종재	0.75	0.74	1.48	0.82	2.35	1.03	1.19	1.86	1.32	2.86
자본재	0.82	0.85	1.74	0.78	2.76	1.27	1.54	2.42	1.30	3.69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0.83	0.86	1.74	0.76	2.73	1.28	1.55	2.41	1.28	3.63
산업용 운송장비	0.01	0.04	1.34	1.93	4.44	0.32	0.11	5.27	5.05	19.04
소비재	0.45	0.31	0.48	0.99	0.80	0.42	0.30	0.44	1.36	0.76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0	0.01	0.00	0.05	0.00	0.00	0.02	0.00	0.02	0.01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02	0.19	0.03	4.43	0.18	0.02	0.13	0.01	5.84	0.56
승용차	0.02	0.00	0.92	2.55	0.15	0.00	0.00	0.73	15.13	2.8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1	2.15	1.44	4.76	0.00	0.00	6.67	0.42	5.91	0.04
내구 소비재	3.71	0.16	0.14	1.00	1.58	2.25	0.15	0.11	0.38	0.81
반내구 소비재	0.62	0.88	0.52	0.40	1.43	0.62	0.72	0.50	0.76	1.06
비내구 소비재	0.13	0.15	0.76	0.71	0.81	0.39	0.22	0.94	0.57	1.14
미분류	5.33	0.01	1.16	0.01	0.00	5.23	0.04	3.59	0.09	13.99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코드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업종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농림수산업과 광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낮았던 반면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9.7%)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장점유율은 2009년에 비해 상당폭 하락함.

- 제조업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9.7%로 일본(11.2%)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함.
- 1위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5.5%p에서 2014년 1.5%p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3위 독일과의 격차 역시 축소
- 한국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함.
- 2009년과 2014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10개 업종에서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11개 업종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금속 제조업(+6.4%p)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0%p)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가구 제조업(-18%p)과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14.4%p)은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임.

■ [국가별 점유율] 제조업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대비 20.5%p 하락

- 5개국의 제조업 내 점유율은 61.0%에서 40.5%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일본(-8.5%p)의 점유율 하락이 가장 크고 한국(-4.1%p)과 미국(-3.9%p)의 점유율 하락도 비교적 크게 나타남.
- 2014년 기준으로 담배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내 23개 세부 업종 중에서 국가별 점유율 1위 업종의 수는 일본이 7개로 가장 많았음.
-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국 6개, 한국 5개, 독일 3개, 대만 2개였는데, 이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2개 업종 증가, 한국과 대만은 각각 1개 업종이 증가한 결과임.
- 또한 전체 업종에서의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을 보면 일본은 21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장쑤성 내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한국은 13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함.



표 13.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업종별)

(단위: %)

분류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11.4	6.6	16.0	11.9	7.8	7.9	4.9	9.2	6.3	5.5
농림수산업	0.0	0.0	0.0	42.5	0.0	0.0	0.0	0.0	11.3	0.0
광업	0.4	0.3	1.0	1.2	0.0	0.4	0.1	0.6	0.5	0.0
금속 광업	0.0	0.0	0.0	0.5	0.0	0.0	0.0	0.0	0.3	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5.9	4.6	16.6	12.6	0.1	7.6	2.4	11.7	4.0	0.9
제조업	13.8	7.9	19.3	10.6	9.4	9.7	6.1	11.2	6.7	6.8
식료품 제조업	0.1	0.1	0.1	5.9	0.2	0.2	0.1	0.0	6.4	0.7
음료 제조업	0.1	4.3	0.4	2.2	2.7	0.1	3.3	0.2	6.8	3.8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1	3.7	4.9	7.0	3.3	2.6	3.8	1.9	10.0	2.1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1.4	1.9	0.9	2.2	0.4	0.3	1.1	0.6	0.5	0.3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3	1.2	0.2	11.8	0.4	0.2	0.5	0.0	18.1	0.0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	0.1	0.0	3.9	0.7	0.0	0.0	0.0	7.6	0.3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9	1.2	8.8	29.8	2.1	1.0	1.0	9.7	36.1	2.5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9.8	19.5	20.4	13.1	12.0	11.0	16.0	15.8	9.4	17.5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6.3	5.3	9.9	7.0	1.4	1.9	1.2	1.0	1.4	0.3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3.7	14.0	21.2	8.3	4.0	17.5	8.3	14.5	6.0	2.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4	0.1	9.6	6.9	5.6	0.3	0.1	6.8	2.8	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0	8.2	22.7	8.9	9.8	13.0	8.6	14.7	8.6	9.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8.3	27.8	15.9	13.4	6.8	16.7	21.3	8.5	17.7
1차 금속 제조업	10.5	5.6	23.0	19.0	6.8	16.9	8.1	16.1	13.0	5.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17.4	10.7	20.7	7.8	18.9	16.0	8.3	14.4	7.6	1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0.0	13.5	16.7	7.3	12.3	10.0	16.5	12.2	4.2	8.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9.1	3.9	16.4	16.9	22.0	8.9	7.3	16.6	12.1	16.2
전기장비 제조업	16.1	4.6	18.3	9.6	16.6	12.9	5.9	13.9	5.5	15.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9.5	6.4	30.4	7.6	22.4	10.0	8.6	24.1	7.9	21.9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3.6	1.5	13.2	3.8	16.4	40.7	2.7	12.1	7.4	1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5	2.8	25.5	12.4	19.4	8.5	4.5	31.5	8.0	16.5
가구 제조업	49.3	2.9	9.2	3.4	11.2	31.3	2.8	3.5	3.2	14.1
기타 제품 제조업	1.2	1.4	44.0	4.1	4.3	2.1	4.2	39.0	6.7	2.0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분류	60.9	0.0	18.5	0.0	0.0	-	-	-	-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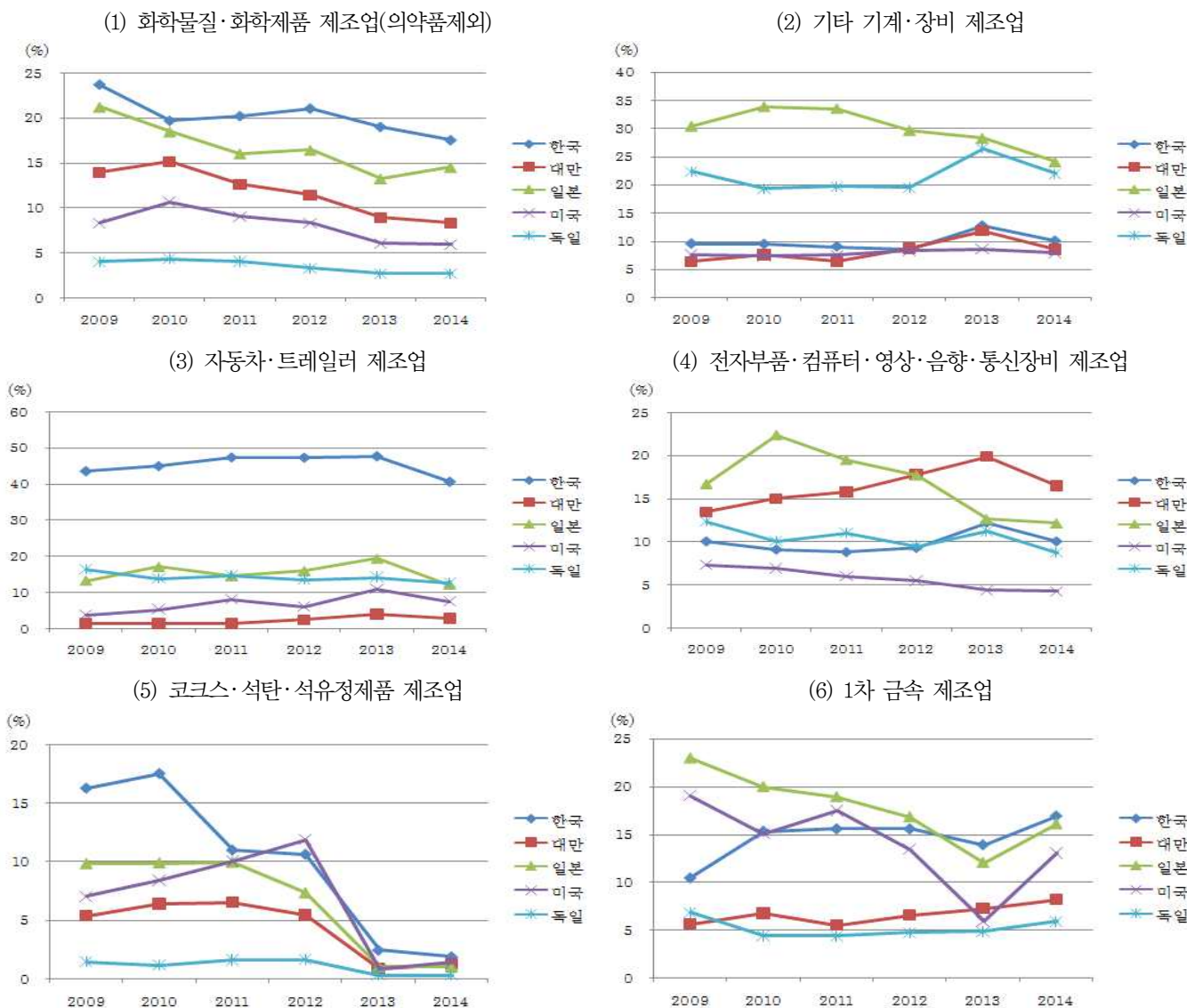
■ [업종별 점유율] 장쑤성 내수용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5대 수입 업종 중 한국은 2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함.

- 장쑤성 최대 수입 업종인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 한국은 19.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일본과의 격차도 소폭 확대(2009년 2.5%p → 2014년 3.0%p)
 -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23.7%에서 2014년 17.5%로 하락하였으며, 상위 5개국의 시장점유율도 71.2%에서 49.0%로 크게 하락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한국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16.3%)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에는 1.9%까지 크게 떨어짐.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주요 5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40.0%에서 2014년 5.8%로 대폭 하락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일본(24.1%)과 독일(21.9%)이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국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2%p로 크게 축소됨(2014년).⁸⁾
- o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9.5%(2009년)에서 소폭 상승한 10.0%(2014년)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한국의 대장쑤성 최대 수출 업종임에도 내수용 수출시장에서는 10.0%의 점유율로 대만(16.5%)과 일본(12.2%)의 뒤를 이어 3위에 머물렀음.
-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2009년 이후 한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16.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시장점유율 16.1%를 기록함.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한국이 수입시장 점유율 40.7%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임.

그림 9. 5개국의 주요 업종별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8) 2009년 일본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0.4%, 22.4%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나, 비교우위의 크기는 5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낮았음.

- 제조업 내 23개 세부 업종 중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수출 업종이 2009년 7개에서 2014년 12개로 증가함. 즉 5개 업종이 비교열위 업종에서 비교우위 업종으로 전환되었으며, 1개 업종이 비교열위 업종으로 전환됨.
-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에는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류·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있음.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출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비교열위 업종으로 전환됨.
-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⁹⁾은 모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제조업은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대만과 독일이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임.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한국·대만·일본이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으로, 특히 일본의 비교우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으로, 한국·대만·미국이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반면 일본·독일은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됨.
- 1차 금속 제조업 역시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이나, 한국·대만·독일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이며 일본·미국은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된 업종임.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대만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으로, 한국의 비교우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업종임. 특히 한국은 2009년에 비해 비교우위가 크게 높아진 특징을 보임.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임. 대만의 비교우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 중 한국은 모두 12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10개, 일본 14개, 미국 16개, 독일 13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표 14. 주요 국가의 장쑤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업종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00	0.00	0.00	3.57	0.00	0.00	0.00	0.00	1.80	0.00
광업	0.03	0.05	0.06	0.10	0.00	0.05	0.03	0.07	0.08	0.01
금속 광업	0.00	0.01	0.00	0.04	0.00	0.00	0.00	0.00	0.05	0.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51	0.71	1.04	1.06	0.02	0.95	0.48	1.28	0.64	0.16

9)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표 14. 계속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제조업	1.21	1.21	1.20	0.89	1.21	1.22	1.23	1.22	1.07	1.23
식료품 제조업	0.01	0.02	0.00	0.49	0.03	0.02	0.02	0.00	1.01	0.13
음료 제조업	0.01	0.65	0.02	0.18	0.35	0.02	0.66	0.02	1.08	0.69
담배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0.18	0.56	0.30	0.58	0.43	0.32	0.77	0.21	1.60	0.38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12	0.28	0.06	0.18	0.06	0.04	0.22	0.07	0.08	0.06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03	0.18	0.01	0.99	0.05	0.02	0.10	0.00	2.89	0.01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0	0.01	0.00	0.33	0.09	0.00	0.01	0.00	1.21	0.05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08	0.19	0.55	2.50	0.27	0.13	0.19	1.06	5.76	0.4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86	2.97	1.28	1.10	1.55	1.38	3.25	1.72	1.49	3.15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42	0.81	0.62	0.59	0.19	0.24	0.25	0.11	0.22	0.06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8	2.13	1.33	0.70	0.51	2.21	1.68	1.59	0.95	0.49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03	0.01	0.60	0.58	0.72	0.04	0.02	0.74	0.44	1.1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3	1.24	1.42	0.75	1.26	1.64	1.75	1.60	1.37	1.6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6	1.27	1.73	1.33	1.72	0.86	3.39	2.33	1.36	3.20
1차 금속 제조업	0.92	0.86	1.43	1.59	0.88	2.13	1.65	1.76	2.08	1.0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1.53	1.63	1.29	0.66	2.43	2.01	1.67	1.57	1.22	3.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0.88	2.06	1.05	0.61	1.58	1.27	3.34	1.33	0.67	1.5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0.80	0.60	1.03	1.42	2.83	1.12	1.49	1.81	1.93	2.93
전기장비 제조업	1.41	0.71	1.14	0.81	2.13	1.63	1.19	1.52	0.87	2.7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0.83	0.98	1.90	0.64	2.88	1.26	1.73	2.63	1.26	3.9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82	0.23	0.83	0.32	2.11	5.13	0.55	1.32	1.18	2.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48	0.42	1.59	1.04	2.49	1.08	0.91	3.44	1.27	2.98
가구 제조업	4.32	0.44	0.58	0.28	1.44	3.95	0.56	0.38	0.52	2.54
기타 제품 제조업	0.10	0.21	2.75	0.34	0.55	0.26	0.85	4.25	1.07	0.36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미분류	5.34	0.01	1.16	0.00	0.00	6.13	0.04	4.20	0.10	14.36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장쑤성 내수용 수입] 장쑤성은 2013년 이후 일반무역(내수용) 수입 비중이 가공무역을 넘어서면서 내수용 중심의 수입 구조로 전환 중에 있음. 그러나 중국이 2000년대 후반에 이미 내수용 수입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장쑤성은 가공무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가공단계별로 볼 때 장쑤성의 내수용 수입은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총수입보다 낮은 대신 일차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중간재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30.4%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은 특징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세부 업종별로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18.1%)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16.2%)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9.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6.4%) △ 1차 금속 제조업(4.3%)에서의 수입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장쑤성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내수용 수입에서는 그 비중이 6.4%로 크게 낮았음.

■ [한국의 수출]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중에서 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2014년)에 불과해, 한국은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장쑤성 내수용 수출은 가공단계로 볼 때 중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60.3%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고도로 집중된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최종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종재 중 소비재의 수출 비중은 1.9%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비내구소비재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42.3%를 기록하며 수출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음.
- 업종별 수출 비중은 제조업이 99.3%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 상위 2대 업종(화학물질·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52.0%로 높게 나타남.

■ [수입시장 내 경쟁]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¹⁰⁾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 내구 소비재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냈으며, 업종별로는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장쑤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대만·일본이,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서는 일본·독일이 주요 경쟁 국가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는 대만·일본,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대만·일본·미국·독일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는 일본·미국·독일이, 가구 제조업에서는 독일이 주요 경쟁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장쑤성 수입시장에서 일반무역의 수입 비중이 가공무역의 비중을 추월하며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긴요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구조는 중간재 중심의 수직적 분업구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현지 수출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가공무역기지 활용이 아닌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형으로 수출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쑤성의 수입구조는 중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장쑤성의 내수용 수입의 증가율이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내수용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점차 확대되는 내수용 수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국기업들이 최근 독자적인 기술과 브랜드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무역 수입이 점차 자국 내 조달로 대체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 내수용 수입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임.
- 따라서 현지 수출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의 대장쑤성 수출전략도 기존의 가공무역기지 활용이 아닌 내수시장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10) 앞서의 시장점유율 분석과 시장비교우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공단계별 또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위 이면서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이나 업종을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품목(또는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또한 해당 품목이나 업종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국가를 수입시장 내 경쟁국가로 분류함.



- 내수시장 진출 확대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이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간재의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가공무역용 중간재에서 내수용 중간재 수출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
 - 장쑤성의 가공단계별 수입시장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일차상품과 소비재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48.2%로 가장 크며, 소비재 수입이 연평균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내수용 수입시장 내 비중은 4.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쑤성 수입시장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한국의 대장쑤성 수출 역시 중간재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용 중간재 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대장쑤성 중간재 수출 비중은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쑤성의 내수용 수입에서 중간재에 대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3.7%로 주요 5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임.
 - 특히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과 수출증가율이 높은 화학물질·제품, 1차 금속, 고무·플라스틱 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등 품목은 향후에도 대장쑤성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재는 아직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작지만, 최근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진출분야를 발굴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재 수입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 소비재 수요 증가, 중산층 규모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내수용 소비재 수입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재의 경우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내구 소비재를 비롯해서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가정용 식음료품), 화장품 등의 비내구 소비재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에서 내수용 중간재 수출로의 전환과 소비재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고객기업, 전문 도매유통기업, 온라인 유통체인과의 사업협력 등을 통해 현지 유통망 구축을 강화할 필요
 - 기존의 수출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내 로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나 중국 특유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새로운 유통망 구축 및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과 중국 현지 로컬기업, 전문도매유통기업대리상 등 유통업체간의 연계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비재의 경우 중국 내 주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체인과의 사업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현지 유통망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양평섭 외. 2013.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김부용, 정지현. 2015.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영문자료]

- EIU. 2015 “Access China Jiangsu.” (June)
 _____. 2015. “Access China Jiangsu.” (March)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 무역협회.
 장쑤성 통계국.
 장쑤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쑤성 상무국.
 장쑤성 통계국.
 중국 해관통계.
 CEIC Database.